조금 도전

리코더로 「기쁘다 구주 오셨네 (Joy to the World)」 불기

리코더 「기쁘다 구주 오셨네 (Joy to the World)」 계이름 악보. 음마다 운지가 있습니다.

1719년 아이작 와츠가 쓴 크리스마스 노래로, 한국에서는 「기쁘다 구주 오셨네」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. 첫 소절은 높은 레에서 높은 도#을 지나 낮은 레까지 음계를 곧게 내려갑니다. 사용하는 음은 8개: 낮은 레·낮은 미·파 샵·솔·라·시·높은 도 샵·높은 레. 아래에 리듬이 있는 음과 각 음의 운지가 있습니다.

음

레' 도#' 시 | 라 솔 | 파# 미 | 레 라 |
시 시 | 도#' 도#' | 레' | 레' 레' 도#' 시 | 라 |
라 솔 파# | 레' 시 라 솔 | 파# 솔 파# | 미 레 |

블록이 길수록 긴 음입니다. 선은 마디의 경계입니다.

오선보

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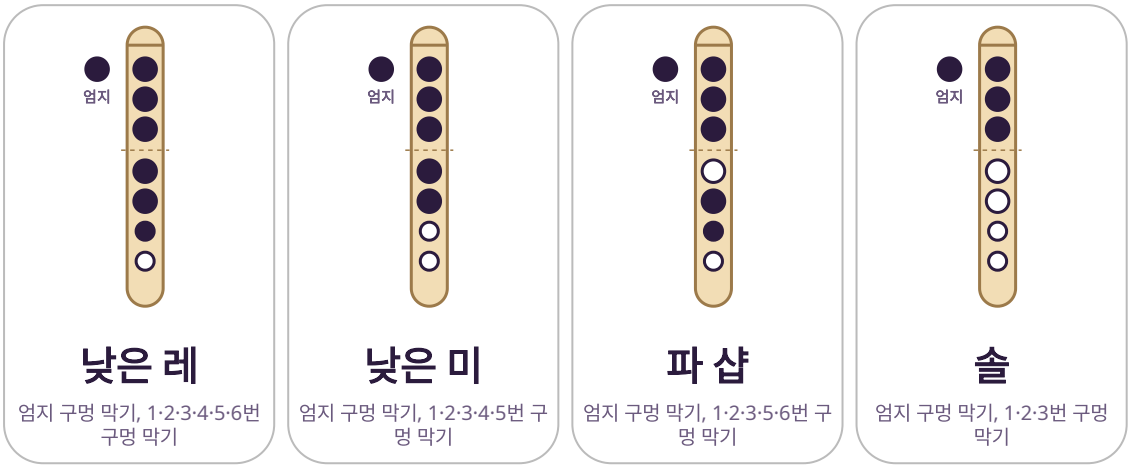
같은 노래를 오선보로 봅니다. 아래에 음 이름이 있습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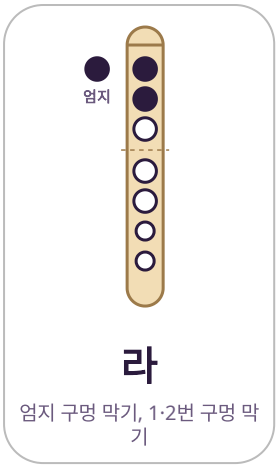
계이름으로 쓴 음

레' 도#' 시 라 솔 파# 미 레 라 시 시 도#' 도#' 레' 레'
레' 도#' 시 라 라 솔 파# 레' 시 라 솔 파# 솔 파# 미 레

「'」는 높은 음 표시입니다: 높은 도 샵·높은 레. 소프라노 리코더용, 바로크식 운지입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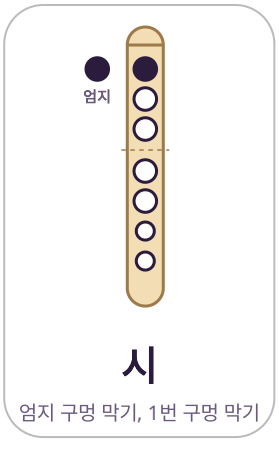
운지





라

엄지 구멍 막기, 1·2번 구멍 막기



시

엄지 구멍 막기, 1번 구멍 막기



높은 도 샵

엄지 구멍 열기, 1·2번 구멍 막기



높은 레

엄지 구멍 열기, 2번 구멍 막기

재생을 누르면 음을 들을 수 있고, 카드를 누르면 부는 법이 보입니다. 검은 구멍은 막습니다. 왼손이 위(엄지는 뒤, 1~3번 구멍), 오른손이 아래(4~7번 구멍)입니다.

연습 팁

- 음마다 「투」 하고 혀를 써서 불어요(텅잉). 같은 음이 이어져도 하나하나 또렷하게 들립니다.
- 뜨거운 수프를 식히듯 부드럽게 불어요. 너무 세게 불면 삑 하고 한 옥타브 위 음이 납니다.
- 손가락 끝이 아니라 손가락 볼(부드러운 부분)로 구멍을 막아요. 틈으로 바람이 새지 않습니다.
- 낮은 레은(는) 가장 부드러운 숨으로, 모든 구멍을 꼭 막고 불어요. 삑 소리가 나면 먼저 아래쪽 손가락을 확인하세요.
- 파#(바로크식)은 엄지와 1·2·3·5·6번 구멍을 막고 4번은 열어서 붑니다.
- 높은 레는 엄지 구멍을 열고 2번 구멍만 막습니다. 왼손 가운뎃손가락으로 받칩니다.
- 높은 도#은 엄지 구멍을 열고 1·2번 구멍을 막습니다. 높은 레에 집게손가락을 더한 모양입니다.